

선거사범 190명... 광주·전남이 부끄럽다

4·11 총선 수사 공소시효 내달 10일 만료... 구속 19명 전국 최다

국회의원·구청장·당직자·서민까지 연루 '충격'

광주지검, 민주당합당 배기운 의원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이 다음달 10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4·11 19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남은 20일 동안 현재 입건된 190명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박주선 의원(동구·무소속)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오는 27일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배기운 의원(나주·화순·민주당)이 20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 과거 총선과는 달리 19대 총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구청장들의 선거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동구 불법선거사건은 구속 12명, 불구속 기소 17명 등 피고인만 무려 29명에 달하고 전 민주당 당직자, 구 산하기관 관계자, 의원 보좌관,

국회의원은 물론 화장품 영업사원, 슈퍼마켓 주인, 주부 등 서민들까지 연루돼 큰 충격을 줬다.

2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190명으로, 이 가운데 133명을 기소하고, 52명은 불기소,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190명 가운데 구속기소는 19명, 불구속 기소는 114명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2295명이 입건돼 100명이 구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전남 입건자 비율은 8.27%, 구속자 비율은 19%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데는 4·11 선거 관련 최대 사건으로 평가되는 동구 불법선거가 탓이 크다.

국회의원 선거에 구청장의 선거개입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도 이번 4·11 총선의 특징이다. 유태평, 동구구청장이 박 의원의 민주당 내 후

■ 광주지검 19대 총선 선거사범 처리 현황

구분	입건	처리			수사중
		소계	기소	불기소	
합계	190	185 (처리율 97.3%)	133	52	5
구속	19	19	19	0	0
불구속	171	166	114	52	5

보경선 과정에 개입해 자신의 조직을 동원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오는 27일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형배 광산구청장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9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구청장들의 선거개입으로 선거사범 수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18대 총선에서는 85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67명이 기소, 18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구속된 선거사범도 3명에 불과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4명이 입건됐으나 2명은 혐의 없음을, 2명도 무죄와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

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전까지 수사중인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20일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민주당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월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1000여만 원을 주고 2800만원 가량의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김씨는 배 의원의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역사에서 배우겠다”

안철수,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동작동 현충원에 도착, 박순숙 선거총괄역과 조광희 비서실장, 정연순·유민영 공동대변인, 이숙현 부대변인 등과 함께 충혼탑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안 후보는 이어 학도무명용사탑을 시작으로 박태준 전 총리와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등 원인에 안장된 역대 대통령들의 묘역, 사병묘역을 차례로 찾아 참배했다.

이는 민주당합당 문재인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사병묘역을 참배한 것,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을 참배한 것보다 폭넓은 행보다. 보수와 진보,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모두 넘어서는 ‘통합’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야권 후보단일화 경쟁자인 문 후보보다 스펙트럼이 넓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역사에 공과(功過)와 있다면 공은 계승하고 과는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배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정희 시대에 우리 산업의 기간이 마련됐지만 이를 위해 노동

- 박정희 평가
“권력의 사유화로 너무 많은 희생이...”
- 김대중 평가
“민주주의에 헌신 경제위기 극복 양극화는 더 심화”

못에서 배우고 과거의 성과에서 또 배우고 계승해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대 총장실을 찾아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교수직 사직서를 제출한 뒤 수원캠퍼스에 있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을 방문해 동료교수 및 학생들과 작별인사를 나눴다. 또 분당 소재 안팎(구 안철수연구소)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환송연을 가졌다.

한편, 이날 안 후보가 현충원에서 박 전 총리의 묘역에 먼저 참배한 것을 두고 오늘날 포퓰의 신화를 만들어낸 박 전 총리의 리더십을 이어가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안 후보 측은 묘역 위치에 따른 동선을 고려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홍사덕·최동익·장향숙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빛의 만평

- 김종두



이름하여...

검찰, 공천비리 수사

민주당합당 공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민주당 최동익 의원(비례대표)이 장향숙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과 최 의원의 대표를 맡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장 전 의원의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자택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간부인 강씨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3월부터 4·11 총선 직전인 4월초까지 3차례에 걸쳐 강씨와 함께 장 전 의원에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

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이번 주말부터 최 의원과 장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인 최 의원은 4·11 총선 때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해 당선됐다.

또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홍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금품 공여자 지목된 진모(57) 회장이 운영하는 H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까지 두 차례 소환조사한 진 회장의 운전기사 고모(52)씨를 통해 홍 전 의원 측에 6000만원이 전달된 정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태풍 피해로 상심이 큰 농어민을 위로 합니다. 여러분! 힘 내십시오.

육지의 끝, 그래서 깨끗합니다. 바다의 시작, 그래서 신선합니다.

올 추석 선물은 "해남미소"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해남미소

해남군 직영 농수특산물 종합쇼핑몰

해남미소 061-537-1472 (일사천리)

인터넷 검색창에서

해남미소 검색 를쳐보세요!

해남군



승리의 명량! 호국의 울동목!

2012 명량대첩축제

불멸의 해전서 감동의 재현

2012. 10.5 ~ 10.7 3일간

해남군 우수영관광지 · 진도군 녹진관광지 일원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한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